

第93回 居昌郡議會 臨時會  
2002. 10. 18(金) 10:00

2002年 第2回 追加更正 豫算(案) 提出에 즈음한

# 提 案 說 明

居 昌 郡

존경하는 신전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깊은 감동과 함께 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군민을 위한 무한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가슴깊이 느껴집니다.

어느새 아침저녁으로는 찬 기운과 함께 온 들녘엔 황금물결이 출렁이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민선3기 취임인사를 드린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석 달, 100일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석 달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민선3기 출범과 함께 불어닥친 사상 초유의 태풍“루사”의 재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 군민의 저력이 바로 우리 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민이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태풍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의 위대함과 거창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민선3기 새 희망호는 충분하고도 빠른 위명업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향로에 대한 확신과 항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 기회였습니다.

비록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힘차고 고되지만 제가 원했고 저를 선택해 주신 군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복이라 생각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힘써주신 국회의원과 도의원님, 그리고 각급 기관·사회단체, 특히 신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가슴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지도 않은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해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현장 구석구석을 방문, 수재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특별재해지구 지정을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 관계 요로에 전달하고

KBS · MBC TV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거창의 극심한 피해현장을 여과없이 전국에 홍보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이 특별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어 항구적인 복구의 길을 열어놓은 것은 바로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군민 모두의 값진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은 삼재가 없는 고장, 자연재해의 피해로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운 곳으로 인식되었던 일반적인 통념이 이번 태풍 “루사”를 계기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결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육 백 여 공무원은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 하에 주택 복구는 금년 동절기 이전에, 농경지 복구는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그리고 대규모시설을 제외한 소규모 공공시설물 설치는 내년도 우수기 이전까지 마무리하여 수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는 민선2기를 마무리하고 군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준 민선3기의 힘찬 출범의 해로서

군민들이 거창 발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기대

하고 있는 만큼 7만 군민의 지혜와 의지를 결집해 번영의 21세기를 열어가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드는 데 군정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급속도로 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군정현안전반에 관한 자문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초일류행정을 펼치고자 현장경험과 실무에 밝은 전문가로 구성된 「희망21 군정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군민여론을 겸허히 수렴,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군정을 실현해 나아가겠습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생동있고 살아 숨쉬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 한편,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복지 증진과 다함께 잘사는 복지여건을 조성하여 행복이 샘솟는 생활복지를 지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문화관광 수요창출을 통해 다함께 누리는 개성이 넘치는 문화관광산업을 개발하고 가꾸어 나가는 데 군정목표로 삼고 이를 활기차게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올해는 수해피해의 항구복구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제

가 공약한 군민과의 약속과 군정목표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준비단계이며  
민선3기의 구체적인 비전의 실현이나 사업의 실질적인 시작은 내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군민의 증지를 함께 모아서 분명한 색깔과 특성을 담은 패기와 역동적으로 하나하나 챙겨 반듯한 거창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의 추가경정 예산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의 취소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취소·변경  
특히 의원 여러분들께서 국외연수계획도 취소하고 연수 비용 전액을 삭감하여 수해복구비로 전환시키는 등 경 상예산 절감분과 태풍 피해복구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태풍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

80억 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방채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무리없이 상환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418억 9,600만원의 81%인 1,149억 5,200만원이 늘어  
난 2,568억 4,8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2,462억 6,300만원으로서 1,149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00만원이 늘어난 10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이자수입등 세외수입 12억 5,800만원과 지방  
교부세 증가분 및 특별교부세 31억 4,600만원,  
태풍피해 복구비 등 국·도비보조금 1,025억 4,700만원과 지  
방채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태풍피해 항구복구비에 1,140억 2,700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예비비 등에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태풍으로 인한

부족한 복구재원확보를 위해 경상예산의 삭감과 국·도비 변경사업의 정리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취임과 동시에 군수의 역량을 시험이라도 하듯 이번에 불어닥친 혹독한 시련이 저에게는 민선3기를 열어 가는 참된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 기회를 다시없는 호기로 삼고 차질없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저는 의원 여러분들과 힘을 합하여 7만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와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